

## 곤조지 절

오시오야마 산 중턱에 위치한 곤조지 절에서는 오히라노 지역의 자연을 즐기면서 경내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해발이 높아 다른 곳보다 빨리 단풍이 들기 때문에 경내의 단풍나무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드는 가을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곤조지 절은 718년에 창건되었지만, 오닌의 난(1467~1477년)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여러 사원과 마찬가지로 곤조지 절도 제 5대 도쿠가와 쇼군이었던 쓰나요시의 모친인 게이쇼인(1627~1705년)의 자금 원조를 받아 1691년에 재건되었습니다.

## 경내

절 입구인 니오몬 문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가면 절 사무소와 종각, 연못, 고마도(護魔堂) 등이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본당은 돌계단을 다 올라간 곳에 있습니다. 본당에는 곤조지 절의 본존으로서 자비의 보살인 십일면 천수관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본당은 보통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당 밖에서 보살님을 참배합니다.

본당 서쪽에는 하야마 신사와, 게이쇼인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게이쇼인고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본당 동쪽에는 붉은색 도리이가 있는데, 승군지장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 아타고다이곤겐의 본전으로 향하는 오솔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군지장보살은 화재를 막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며, 원래 교토 북서쪽에 있는 아타고야마 산에서 승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군지장보살상은 4월 23일에만 일반에 공개되며, 고마도에는 복제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가이산도(開山堂)로 올라가는 계단과, 팔각형 석조 울타리 안에 시모노가와 변재천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전망대가 있어서 교토 분지와 주위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 근처에는 복고양이와 통통하고 귀여운 너구리 장식품 등으로 꾸며진 소박하고 오래된 다실이 있습니다. 경내에서는 이 외에도 도기로 만든 많은 너구리 장식품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연 경관을 즐긴다

산중턱에 위치한 곤조지 절은 자연과 사계절의 변화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봄에는 게이쇼인이 심었다고 하는 연못가의 벚나무와 산의 사면에 있는 야생벚나무가 풍경에 섬세한 분홍과 흰 색조를 더합니다. 경내와 돌계단을 따라 심어진 많은 단풍나무는 봄부터 여름은 산뜻한 녹색, 그리고 가을에는 선명한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주의하실 점: 비가 오는 날의 산길은 미끄러지기 쉽고 토사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악천후 시에는 참배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